장마철 야생버섯 '주의보'

국내 자생 버섯 1900종 중 400여종만 식용 가능
나머지는 식용 불분명
민간속설도 과학적 근거 '無'

중독사고 예방 위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

개나리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장마철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이에 따른 중독사고의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은 19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전체의 21%인 약 400여 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독이 있거나 식용이 불분명한 버섯이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야생버섯은 종류가 다양하고, 발달 단계, 발생환경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나타내므로 겉모양만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독우산광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독버섯으로 아마톡신(amatoxin) 균독소를 지니고 있다. 아마톡신은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을 일으키고, 간,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손상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흰주름버섯과 형태가 비슷해 이를 혼동한 중독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독우산광대버섯의 주름살은 항상 흰색을 띠지만,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연한 분홍빛을 나타내다가 성숙할수록 뚜렷한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비슷한 노란 우산 형태의 자실체를 지녀 혼동하기 쉽다. 노란달걀버섯은 개나리광대버섯과 달리 갓 둘레에 흠 선이 뚜렷하고, 치마 모양의 담황색 턱받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민간 속설도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하면 안 된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거나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는 등의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야생버섯 섭취는 항상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되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버섯을 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ESG 경영 도입 선포' LX, 저탄소 경영 나서
규정 개정 통해 302만개 보호캡 폐자원 활용

ESG 경영 도입을 선포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 LX공사)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탄소 경영에 나선다.

LX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경계점 표지는 한해 평균 302만 개로, 여기에는 플라스틱 보호캡과 페인트가 사용됐다.

이에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계점 표지에 사용되는 80t 분량의 플라스틱 보호캡을 폐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를 사용하고, 몸체 도장에 사용된 15t 분량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LX공사는 친환경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연간 80톤의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축구장 14개 면적(약 10ha), 30년생 편백나무 1만2,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한 규모다.

또한 경계점표지(목재) 몸체 도장 생략으로 약 15톤 분량의 페인트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업역과 관련한 ESG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모두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女 육상팀 전국실업경기서 선전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고성에서 열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육상팀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먼저 400m 경기에 출전한 김지은은 56초7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은은 이어 400m 허들 경기에서도 61초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은주 · 김지은 · 오미연 · 김민지가 출전한 400m 계주에서도 48초95로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김민지는 멀리뛰기에서 6m03를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우진 감독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컨디션 조절과 부상 방지 등을 통해 다음 대회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7일 지역 앵커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앵커기업 혁신성장 성과 구체화 '주목'

전북바이어진흥원, 민간주도 지역기업 육성 성과보고회
코로나19 속 참여기업 총 매출액 711억원으로 131억 ↑
도내 자원 활용 확대 · 전후방 연계기업 동반성장 이어져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지역 앵커기업들의 혁신성장 성과가 구체화되기 시작해 주목된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지난 7일 지역 앵커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정부(지자체) 중심의 단발성, 비연속적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주도의 Bottom-up 방식으로 핵심 타겟 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내 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고려자연식품(전주), 은성푸드(익산), 코엔에프(김제), 연두(익산), 만선영어조합법인(고창), 효송그린푸드(군산), 두손푸드(정읍), 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익산), 대풍년영농조합법인(정읍),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무주), 청맥(고창) 등 총 11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해외수출 판로개척,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인증 등 각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앵커기업으로 우뚝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과 기업지원과 실무팀장 및 주무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과 사업총괄책임자 이은미 본부장, 사업실무담당자, 참여기업 11개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종합 성과 발표, 성과품 전시, 분야별 우수사례 소개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참여기업의 총 매출액이 580억원에서 711억원으로 131억원 증가했고, 수출액은 119억원에서 169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하며, 지역 앵커기업으로 확실하게 도약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의 성장이 도내 자원 활용 확대와 전후방 연계 기업들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온라인 비대면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판로 확대(만선영어조합법인), 타겟 마케팅을 활용한 신소비시장 창출(코엔에프),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로 지역 스타기업 선정(고려자연식품, 코엔에프), 참여기업간 기술 협력 MOU 체결을 통한 기술 교류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두손푸드, 청맥), 생산단체와 동반성장 MOU 체결을 통한 지역 잉여농산물 해소 지원(팜조아농업회사법인) 사례와 더불어, 취약계층 제품 기부와 후원,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협력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며, 지역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청맥(고창)의 김재주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맞춤형 지원사업들이 이어져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은 어려운 시국에도 참여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며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한 성과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지역 농산물, 포장패키지 등 다양한 전후방 연계산업 분야까지 동반성장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이런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계속 발굴, 기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도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계약

전주원파워-강릉에코파워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 30만 REC 공급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전주원파워는 지난 9일 강릉에코파워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급계약으로 전주원파워는 오는 2023년부터 2037년까지 15년 간 강릉에코파워에 연 200억원 규모의 REC를 공급하게 돼 안정적인 REC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연 30만 REC 규모로 연간 약 50만 REC를 생산하고 있는 전주원파워의 60% 물량에 해당된다.

전주원파워 관계자는 "이번 강릉에코파워와의 장기 REC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REC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임으로써 발전사들의 주수입원이던 석탄발전 사용을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

전주원파워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2010년 업계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준공을 통해 직접 전주페이퍼에 스팀과 전력 공급을 시작했으며 2013년 REC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종속법인인 전주파워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 상업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 현재 전주원파워와 전주파워는 47MW 규모의 생산전력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은-카카오뱅크, 국고금수납점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지난 8일 국고금 수납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계해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간의 국고금 수납점 업무협약은 국고수납업무 취급기관 확대로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카카오뱅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고금수납점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 상생과 동반성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상담회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5일 우선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일주일간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전라북도교육청 등 6개 기관의 구매 · 계약 담당자와 도내 중소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중 상담을 희망하는 18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에서는 기업별 제품 소개, 발주품목에 대한 심층적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제품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우선구매 홍보 책자를 배부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개와 함께 홍보 효과를 높였다.

상담에 참여한 각 기관 구매 · 계약 담당자들은 제품을 현장 구매하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지역생산품 구매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9일 전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하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지난 1월 1일부터 허용함에 따라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하지 않고 미래 종합건설업의 발전과 영역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대응 ·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기업을 옥죄며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여성친화 기업과 취업박람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 이하 센터)가 웹마케터(전자상거래관리자)양성교육 수료생과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박람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에는 기획 · 홍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여성 인력(인터넷편집사무원, 사회관계망활용 기획홍보사무원 등) 채용을 위해 도내 여성친화기관인 수디자인, 넷시티협동조합, 씨앤피플, (주)지세인 라마다전주호텔 등 4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난 4월 13일(화) 개강한 '웹마케터(전자상거래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들이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기회를 제공받아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현장면접이 가능한 채용관을 비롯해 취업성공을 위한 이미지메이크업, 자신의 강점 찾기 등 현장소통을 강화한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